

전남도 “엄마 프사 바꾸러 전남으로 오세요”

사진 명소 관방제림·윤제림·세랑제·작천 부흥마을 추천

전라남도는 최근 엠지(MZ)세대의 ‘엄마 카카오톡 프사(프로필 사진) 바뀌드리기’ 트렌드를 반영, 사진 남기기 좋은 명소로 담양 관방제림, 보성 윤제림, 강진 작천 부흥마을, 화순 세랑제를 6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담양관방제림은 조선시대 때 홍수를 예방 목적으로 제방을 쌓고, 그 제방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만든 숲이다. 약 4만㎡ 면적에 추정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가 빼곡한 모습이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울창하게 자란 팽나무, 밤나무 등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여름에도 산책하기 좋다. 숲길을 걸으며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싱그러운 햇살 아래서 부모님과 함께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보성 윤제림은 1964년부터 가꾼 민간 정원이다. 약 33만㎡ 면적에 소나무와 편

백나무 등 6만 그루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6월 중순이면 수국 4만 그루가 만개하는데 푸른 숲과 알록달록한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화사한 수국밭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숲속야영장(27개소), 숲속의 집(12동), 야치하우스(18동), 단독 숙박시설(6동)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화순 세랑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무등산 자락 깊숙한 골짜기, 인적이 드문 마을 뒤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이 인상적이다.

밤나무와 물안개가 핀 잔잔한 호수의 풍경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전남에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시엔엔(CNN)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진 작천 부흥마을은 6월이 되면 보랏빛으로 물든다. 이곳에서 오는 20~22일 코끼리마늘꽃축제가 열린다. 코끼리 마늘은 마늘과 꽃 모두 관상과 식재용으로 활용되는 강진군의 특산물이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부흥마을은 유럽의 시골길을 걷는 듯한 정취가 느껴진다.

마을 주민이 직접 가꾼 샤스타데이지, 나비바늘꽃 등 이국적 꽃과 포토존, 휴식

/염선호 기자

‘북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희망의 거리서 개최

청소년의 날 선포식·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프로그램 다채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14일 ‘청소년답게! 청소년이 만든다!’라는 주제로 제1회 북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구 청소년의 날 제정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북구 청소년수련관의 주관으로 추진된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조성된 희망의 거리(일곡제2근린공원)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지역의 청소년 2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부스 운영 ▲식전 공연 ▲모범 청소년 표창 ▲댄스플래이 댄스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될 계획이다.

단, 행사 당일 오전 시에는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는 청소년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사를 제공하고자 북구 청소년수련관, 용봉·일곡·각화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의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선발된 청소년 12명을 운영기획단으로 구성하여 행사 기획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청소년 대표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북구 청소년의



날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청소년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북구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작년 6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북구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12일 시청 무등홀에서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위탁부모와 아동,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위탁가정, 동행하는 아이행복’을 주제로 열렸다.

1부 행사에서는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광주광역시장 표창(5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표창(5

“아이행복 동행”... 광주시,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양육지원 강화 다짐... 위탁부모 역량강화 교육도

명) 및 감사패(1명) ▲광주광역시교육감 표창(2명)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4명) 등이다. 또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홍보영상도 상영됐다.

2부에서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진행됐다.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등이 이뤄져 위탁가

정의 양육역량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위탁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시는 위탁가정이 안정적인로 아동을 양육하고,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가정위탁제도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현재 광주에서는 약 300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양육보조금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전문아동보호비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도일 기자

서구 풍암동 주민총회, 마을축제로 확대 개최

9일간 ‘주민총회 주간’ 운영... 야시장터, 체육대회 등 다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 풍암동은 주민이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2025 풍암동 주민총회’를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제안한 마을 의제를 공유하고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자치의 핵심 과정으로 올해 ‘힐링·쉼·건강’을 주제로 주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축제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풍암동은 하루동안 진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총회 주간(6.13~6.21)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들의 투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풍암동은 지난 5월부터 ‘마을BI(Brand

Identity) 멤버스’를 중심으로 총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정책참여단 회의, 학교총회 등을 통해 ▲작한동아리 참여 확산 ▲금당산의 새이름, 심신치유의 숲 ▲마을 속에서 행복한 나날, 풍-데이(楓-DAY) ▲테마가 있는 공원 시즌2 ▲신비아파트 공동체 시즌1 등 5가지 의제를 발굴했다.

의제 투표는 초등학교 이상 풍암동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설투표소(풍암동 행정복지센터, 푸르덴 풍암점 앞) ▲총회 주간 중 열리는 행사장에 설치되는 이동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학교·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투표소 등을 통해 가능하다. 투표 결과는 주민총회 주간 마지막 날인 21일 풍암고등학교 강당에서 의제 토론과 현장 개표와 함께 공개된다.

풍암동은 목표 투표율 20% 달성을 위해 의제해보, 의제명함, 분과 득표활동 등 실제 선거와 유사하게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총회 주간에는 동화 속 세상 체험(만화 ‘브레드 이발소’와 협업), 아파트 체육대회, 풍암야시장터, 풍드림파크 등 다채로운 테마 행사가 운영된다.



교 강당에서 의제 토론과 현장 개표와 함께 공개된다.

풍암동은 목표 투표율 20% 달성을 위해 의제해보, 의제명함, 분과 득표활동 등 실제 선거와 유사하게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총회 주간에는 동화 속 세상 체험(만화 ‘브레드 이발소’와 협업), 아파트 체육대회, 풍암야시장터, 풍드림파크 등 다채로운 테마 행사가 운영된다.

황정연 풍암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마을 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총회를 축제처럼 즐기고 의제 투표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BI 멤버스를 비롯한 주민이 주도하는 진짜 주민총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 자활생산물 판매 ‘풍당마켓’ 오픈

근로자 동기 부여·가치 있는 소비문화 조성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자활사업단의 생산물 판로 확대와 가치 있는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짝 매장인 ‘금요 풍당마켓’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자활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활 사업단에 몸담은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마다 풍당마켓을 열기로 했다.

생산물 판매 공간을 뛰어넘어 지역 주민들이 자활사업을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금요 풍당마켓은 오는 12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남구청사 1층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호두과자를 비롯해 누룽지 과자, 수제정, 두부 등 다양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를 안내하는 미니 홍보 부스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장에 자활사업 참여 상담

부스를 설치,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도 모집한다.

남구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풍당마켓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면서 “구청에서도 지속 가능한 자활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풍당마켓 운영에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997년 7월 1일 개소한 이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교육과 상담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통해 지역민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